

2020년 1월 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업종별 차별화 속 상승세 지속 기술주, 금융, 산업재 VS. 유틸리티, 바이오, 오프라인 소매업체

미 증시 변화 요인: ①중국 경기 부양정책 ②경제지표 개선 ③업종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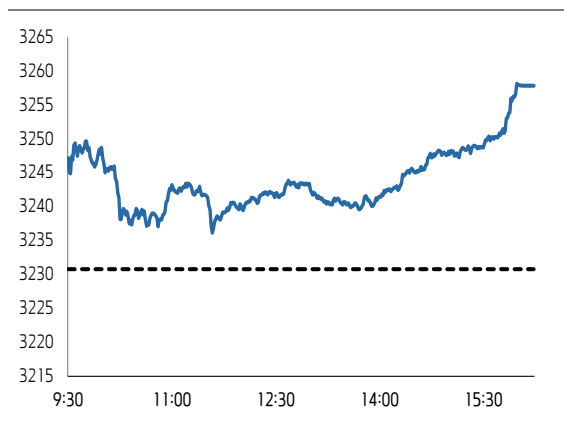
미 증시는 2020년 첫 거래일을 맞아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상승 출발.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과 무역협정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재,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반면, 유틸리티, 소비관련주, 바이오, 업종이 부진하며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 점이 특징(다우 +1.16%, 나스닥 +1.33%, S&P500 +0.84%, 러셀 2000 -0.10%)

미 증시는 ①중국 경기 부양정책 ②경제지표 개선 ③업종별 차별화 속 강세를 이어감. 지난 1일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한다고 발표.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해, 향후 지속적인 기준을 인하 가능성을 시사. 이는 12월 26일 리커창 총리가 "실질금리와 금융비용 인하 방법을 연구 할 것" 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 추정. 리커창 총리의 발언과 이번 인민은행의 인하 이유를 감안 추가적인 기준을 인하 가능성이 높음.

한편, 미 경제지표 개선도 긍정적 영향.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주(22.4 만건) 보다 감소한 22.2 만 건을 기록 12월 대량 해고자 수도 전월(4만 4,569 건) 보다 감소한 3만 2,843 건을 기록해 2018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 결과 연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이 아니라 반도체 등 기술주와 산업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소비재, 유틸리티,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진 모습. 이는 무역협상 서명에 대한 기대, AMD(+7.06%)에 대한 신제품 출시 및 업황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 중국 경기 부양정책 등을 기반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연말 쇼핑시즌 동안 아마존으로 인해 오프라인 소매 유통 업체들의 몰락,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중소형 종목들의 하락(러셀 2000 지수 -0.10%) 등이 주요 요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주요 동향	종가	D-1
KOSPI	2,175.17	-1.02	홍콩항생	28,543.52	+1.25
KOSDAQ	674.02	+0.63	영국	7,604.30	+0.82
DOW	28,868.80	+1.16	독일	13,385.93	+1.03
NASDAQ	9,092.19	+1.33	프랑스	6,041.50	+1.06
S&P 500	3,257.85	+0.84	스페인	9,691.20	+1.49
상하이종합	3,085.20	+1.15	그리스	930.71	+1.53
일본	23,656.62	휴장	이탈리아	23,836.26	+1.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7%

AMD(+7.06%)는 노무라가 신제품 출시 및 업황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40달러→50달러)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 경쟁업체인 NVIDIA(+1.96%), 인텔(+1.65%) 등도 업황 개선을 이유로 강세를 보였다. 노무라는 AMAT(+1.90%)에 대해서도 목표주가를 상향조정(68달러→75달러) 했으며, 이로 인해 램리서치(+1.88%) 등 반도체 장비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다. 여기에 미-중 무역협상 서명 기대감으로 마이크론(+2.99%), 자일링스(+3.97%)도 강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7% 상승했다.

중국의 지준을 인하로 알리바바(+3.62%), HUYA(+11.53%), 텐센트(+6.98%) 등도 급등 했다. 테슬라(+2.85%)는 4분기 생산 및 납품 데이터의 낙관론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디즈니(+2.47%)는 디즈니+ 가입자가 출시 7주만에 2,500만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알파벳(+2.19%)은 시가반 기술로 유방암 조기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 급등했다. 반면, 바이오젠(-0.84%) 등 바이오 업종은 부진했다. 한편, 의류회사인 헤네스브랜(-1.89%)는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으며, 갱(-2.26%), L브랜드(-3.48%) 등도 급락했다. 여기에 연말 쇼핑시즌에서 매출이 급증한 아마존(+2.72%)이 강세를 보인 반면, 콜스(-2.82%), 메이시스(-3.61%) 등은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7%	대형 가치주 ETF(IVE)	+0.38%
에너지섹터 ETF(OIH)	+0.53%	중형 가치주 ETF(IWS)	-0.21%
소매업체 ETF(XRT)	-0.76%	소형 가치주 ETF(IWN)	-0.11%
금융섹터 ETF(XLF)	+0.97%	대형 성장주 ETF(VUG)	+1.44%
기술섹터 ETF(XLK)	+1.88%	중형 성장주 ETF(IWP)	+1.0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57%	소형 성장주 ETF(IWO)	+0.16%
인터넷업체 ETF(FDN)	+1.65%	배당주 ETF(DVY)	-0.50%
리츠업체 ETF(XLRE)	-1.1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73%
주택건설업체 ETF(XHB)	+0.3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0%
바이오섹터 ETF(IBB)	-0.51%	미국 국채 ETF(IEF)	+0.46%
헬스케어 ETF(XLV)	+0.27%	하이일드 ETF(JNK)	+0.40%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49%
반도체 ETF(SMH)	+2.31%	Long/short ETF(BTAL)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0.85%	+0.72%	+8.36%	+0.85%
소재	-1.24%	-0.74%	+3.21%	-1.24%
산업재	+1.81%	+1.46%	+4.46%	+1.81%
경기소비재	+1.29%	+2.21%	+5.84%	+1.29%
필수소비재	-0.82%	-0.75%	+1.12%	-0.82%
헬스케어	+0.19%	-0.23%	+4.31%	+0.19%
금융	+0.94%	+1.26%	+5.52%	+0.94%
IT	+1.73%	+2.29%	+8.66%	+1.73%
커뮤니케이션	+1.32%	+1.15%	+4.24%	+1.32%
유틸리티	-1.38%	-0.47%	+2.00%	-1.38%
부동산	-1.32%	+0.06%	+0.48%	-1.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수 상승 기대 높음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3%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2.03%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5,054 계약이나 순매수 하며 2.45pt 상승한 293.20pt 를 기록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7.47pt 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로 인한 수급적인 부담으로 KOSPI 는 부진한 반면 KOSDAQ 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차별화를 뒤로하고 KOSPI 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7% 강세를 보이는 등 관련 종목들의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 IT 종목군에 대한 미 증시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은 업종별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지준을 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비록 전일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이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었을 뿐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은 향후 대 중국 수출 증가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지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최근 상승폭이 컸던 일부 중소형주에 대한 차익 매물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12 월 미국의 제조업 PMI 는 전월(52.6)이나 예상(52.5)를 소폭 하회한 52.4 로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갔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4 만건) 보다 감소한 22 만 2 천건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적은 4 주 평균은 지난 주(22 만 8,500 건) 보다 증가한 23 만 3,250 건을 기록했다.

12 월 미국 대량 해고자 수는 전월(4 만 4,569 건) 보다 감소한 3 만 2,843 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8 년 7 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지표를 발표하는 챌린저는 미-중 무역협상 1 차 타결과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장기물 위주로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폭 상승했다. 트럼프는 이라크 민병대 지지자들이 주 이라크 미 대사관을 공격한 부분과 관련 이란에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 했으며, 미군의 추가적인 병력 파견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확장세를 보인 점,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이 발표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최근 6 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매수세 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한다. 유로화는 브렉시트 이슈 부각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엔화는 중동발 리스크 부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1 월 말 브렉시트 이후 EU 와의 무역협상 우려로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무역협상 불확실성 불구 전환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정해 EU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국채금리는 주가지수 상승과 중국 경기 부양정책,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 위주로 하락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빌미로 상해-런던 간 주식 교차 매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일부 연초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채권 수요 증가 가능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금은 달러 달러 강세 불구 이라크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부양정책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상승했으나, 철근은 0.45%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18	+0.20	+0.11	Dollar Index	96.803	+0.37	-0.75
브렌트유	66.25	+0.38	+0.14	EUR/USD	1.1173	-0.35	+0.68
금	1,528.10	+0.33	+1.55	USD/JPY	108.53	-0.21	-1.00
은	18,046	+0.70	+1.08	GBP/USD	1.3141	-0.85	+1.14
알루미늄	1,804.50	-0.30	+0.03	USD/CHF	0.9712	+0.43	-1.01
전기동	6,188.00	+0.23	-0.03	AUD/USD	0.6989	-0.40	+0.63
아연	2,310.00	+1.67	+0.83	USD/CAD	1.2989	+0.02	-1.01
옥수수	391.50	+0.97	+1.03	USD/BRL	4.0244	-0.01	-1.19
밀	560.25	+0.27	+3.56	USD/CNH	6.961	-0.02	-0.44
대두	956.25	+0.08	+1.22	USD/KRW	1158.10	+0.15	-0.50
커피	127.10	-2.00	-1.78	USD/KRW NDF 1M	1157.47	+0.28	-0.2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74	-4.39	-2.08	스페인	0.441	-2.20	+1.30
한국	1.625	-4.70	-1.70	포르투갈	0.412	-2.10	+1.20
일본	-0.011	0.00	0.00	그리스	1.409	-2.20	-0.60
독일	-0.223	-3.70	+1.90	이탈리아	1.411	+0.20	-1.40